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④

팔정도(八正道)는 수행이 모두 이루어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고 거룩한 상태에 도달한 경지이다. 곧 깨달은 자의 삶이다. 팔정도는 인생이나 세계에 대한 견해가 공(空)한 그대로 받아들여져 지혜로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正見),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결의하는 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에 의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정어(正語),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진리만을 행하는 정업(正業), 일상 생활에서 정당하고 남에게 해가 없는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정명(正命),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로써 올바르게 부처리히 애쓰는 정정진(正精進), 항상 무상함과

眞·미오(迷悟)·사비(是非)·화복(禍福)·심천(深淺)·능소(能所)·문답(問答)·병약(病藥)·성괴(成壞)·명암(明暗)·흑백(黑白)·피차(彼此)·본말(本末) 등의 상대적인 것을 수식(數息)의 조화됨으로 선정(禪定)을 수행하면 청정무위(淸淨無爲)의 경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고행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의 고행자들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누리하고자 했지만, 부처님께서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인생고(人生苦)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고행을 버리고 즐거운 수행을 창안하셨다. 크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살고 죽음을 모순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선보인 것이다.

이 안반법(安般念法)은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의 하나로서 호흡에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처음

생로병사 '苦' 녹이는 안반법

부처님 수행후 자재·자비의 경지 얻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정념(正念), 고요하고 또렷한 마음가짐인 정정(正定)의 여덟 가지이다.

이상의 것들을 합하면 서른일곱 가지의 수행이 된다. <삼십칠도품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들 수행은 <안반수의경>의 십힐(十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상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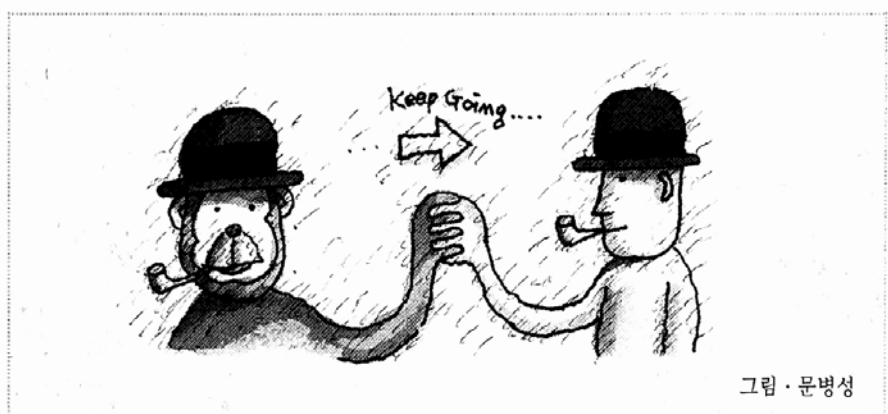
수식(數息) - 사념처(四念處), 상수(相隨) - 사정근(四正勤), 관(止) - 사여의족(四如意足), 권(觀) - 오근(五根), 환(觀) - 오력(五力), 정(靜) - 칠각지(七覺支), 사제(四諦) - 팔정도(八正道)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안반수의 즉 수식만으로 선악(善惡)·내외(內外)·음양(陰陽)·정사(正邪)·직곡(直曲)·귀천(貴賤)·고급(高下)·고저(高低)·정예(淨穢)·생사(生死)·승침(昇沈)·유무(有無)·강약(強弱)·동리(同異)·일다(一多)·단복(單複)·평등차별(平等差別)·극락지옥(極樂地獄)·남북(南北)·동서(東西)·표리(表

은) 수를 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수를 떠나서 무아(無我)의 세계로 들어가 삼매(三昧)에 이르는 선법(禪法)의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 금강보좌(金剛寶座)에 앉으시어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도 이 안반법이었었다.

<안반수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반수의 수행하면서 자재와 자비를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자재(自在)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 서로 대립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유로움이다. 주관이 객관에 끌리면 객관적인 어떤 대상에 부림을 당하게 되어 자재를 잃게 된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면 대립이 없어지므로 객관이 주관의 세계로 들어와 나의 것이 된다. 이러한 세계를 자재의 세계라고 하며, 그 어떤 대상을 부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와 객이 없는 이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대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비심이 솟아난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만물은 고정됨 없이 변한다

불교와 과학 (19)

유전자 결정론

최근에 유전자 지도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과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 유전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약 사만삼천 개 정도라고 한다.

10억 개 이상의 염기서열이 생명체의 특정한 표현 형질을 나타내는 구성체를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런 유전자의 의미는 모든 유전자가 각각 생명현상의 특정부위에 일대일 대응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혈액암이나 간질 혹은 천식을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요인이 고유한 특정 유전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유전자 연구는 유전자 결정론의 생각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과학 유전자 해독 생명신비는 못 캐내

불교 삼라만물 마음이 만들어 낸다

십만 삼천 개의 유전자 수와 이번에 발표한 사만삼천 개의 유전자 수의 차이는 이런 유전자 결정론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다. 우선 사만삼천 개라는 인간 유전자의 수가 쥐의 유전자의 숫자보다 불과 칠천 개 정도만 많다는 점이다. 인간만의 존엄성을 강조하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과학의 결과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숫자 자체가 인간의 생명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라는 점이다. 사만 개 유전자들은 23개의 디엔에이 구조로 되어 있는 염색체에 안착되어 있다. 개체 생명체를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할 때, 그 책은 고유한 염색체의 소재 목을 갖는 23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수천 가지 유전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유전자 결정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 염색체 중의 특정 유전자가 천식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1년 염색체 중의 어떤 유전자는 혈액암 유발인자 등의 일대일 대응되는 방식으로 유전자의 인과법칙이 설명되기를 희망했지만, 4만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는 어렵도 없는 숫자였다. 예를 들어 1998년 중반에 천식 유발인

자는 5년 염색체에 8개의 후보가 있고 6, 12번에도 천식 유전자의 후보가 2개씩 그리고 11, 13, 14번 염색체에도 그 후보를 발견하였다. 또 과학팀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유전자 차원에서 특정 유전자가 질병 등의 특정 생리학적 현상에 대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유전자 결정론을 따르던 과학자들도 유전자 공학의 과학팀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결정론적 일대일 대응론이 무참히 붕괴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마스크에서는 간암 등의 유전자를 발견하면 간암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장밋빛 희망만 던져주고 있다. 어떤 유전자는 분명히 특정한 생명현상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연관방식이 단순히 일대일 대응되거나 직접적인 인과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 연관방식은 매우 복잡한 조합구조를 갖는 유전정보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서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일의(一)적인 해명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의 이야기를 불교사상과 직접 연결시키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유전자의 특성을 단순히 물리화학적 소립자와 같은 실체가 아니라 점에서 불교와 통하는 점이 있다. 생명체의 유전자는 그 생명체가 살아 있는 시간대의 실제적인 원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5억 년이라는 과거의 진화론적 시간을 모두 머금고 있는 역사적 존재이다. 모든 시간을 통해 있는 역사 존재로서의 유전자는 단순히 살아 있는 지금 이 시간대에 국한된 현상적인 인과율 법칙에 절대로 묶여 있지 않다. 생명체가 먼저 있었고 유전자는 그 생명체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후조건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공이 앞서 있으며 연기가 나중에 오듯이 생명현상이 먼저이고 유전자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다. 유전자 지도를 찾아내어 모든 유전자의 인과적 대응현상을 전부 찾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생명체가 기나긴 생명의 역사를 거치면서 환경과의 협동을 통해 (1)자신을 바꾸고 (2)새로 만들고 (3)없어지기도 하고 (4)전혀 다른 것으로 되기도 하는 진화의 과정을 무시한 결과일 수 있다. 생명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인 세계의 모습은 모든 것이 결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과정임이 중론의 중요한 생각이다. 이런 생명의 모습을 잘 관찰한다면 아마도 존재의 무상과 비어 있음을 아껴내며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이 앞선다는 중론의 생각을 생명과학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도 직접적인 과율로 따지려는 유전자 지도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과학적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충석/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걸음마다 독립 염원 97일 고행의 순례길

지구촌 불교 / 티베트인 자유대장정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인도 카시미르주를 출발해 장거리 행진을 벌이던 티베트인 42명이 지난달 14일 뉴델리에 도착했다. 에이피나 로이터 등 세계 유수 통신사들은 이를 '티베트인들이 97일간 고행의 대장정을 무사히 끝내고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며 앞다투어 보도했다.

티베트인들이 출발지로 선택한 곳은 지난해 파키스탄 회교도와 인도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카시미르의 카르길로, 이곳에서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 마을을 거쳐 마하트라 간디 묘역까지의 길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일 뿐만 아니라 대지에서 올라오는 열기 또한 뜨거운 곳이다.

해의 통신사에서 주목한 것은 '독립'이라는 염원 속에 티베트인들이 그런 고행 길을 97일간 걸었고, 또 그 무리 속에는 다수의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날 자유대장정에 나선 티베트인들은 간디 묘역에서 "이번 대장정이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티베트인들이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유엔(UN)은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성 등 42명 카시미르~뉴델리 행진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 인정" 성명도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순수한 염원이 세계 언론에 그대로 투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티베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들이 우선 지목한 것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티베트는 군사·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티베트의 고원 지역은 지리적으로 무기 배치와 개발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티베트 북동부 지역에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원자력 연구 중심지인 '로스알모스'에 해당하는 중국군 산하 '제 9147부대'를 주둔시켰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티베트 고원 지대에 미사일 및 핵시설 등을 갖춘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면서, 인도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완충지대는 목재·수자원·광물자원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까지 있어 중국과 인도의 긴장이 늦추어지기는 당분간 무리일 것 같다.

자유대장정을 이끈 '히말라야 티베트 행동위원회'의 타시 타르 기스 달비르 부위원장이 "티베트 문제의 조기해결에는 인도와 중국의 안보 이해도 걸려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간디 묘지에 모인 티베트인들은 "중국과 인도는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인도 통북부 해발 1900미터의 산악지대인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지난 59년 수립됐지만, 이를 인정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 이 지역에서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잃지 않으려 티베트인들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몸부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지금은 망명정부 청사가 자리잡은 거리를 중심으로 사원과 학교가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 티베트 스님과 불상이며 행화를 벌여 놓은 좌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에는 티베트로부터 도피한 사람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001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계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파를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학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	50명	특수	바라, 나비춤, 법고등	약간명
2학년	각배과	50명	이론	불교의식론	
3학년	영산과	50명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성적 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12일 ~ 3월 1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1년 3월 3일 발표(개별통지)

7. 입학일

2001년 3월 5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8. 특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TEL. 02)392-3234, 동문소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 神示出刊

이 책은, 일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르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율화관이나 사합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 지지를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물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神示해 놓아, 미리 그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來人의 顏色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출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 부박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망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본심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주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 보면 그 사정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唐所를 떠나 부세종일 때는 1시간 후론, 하루 후론, 열흘 후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합의 來情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서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靈言오행가·무속인·스님 등 活人專門의 개인 주문만 믿고 있습니다.

●책 값 : ₩250,000원
 ●책 질 : 연구보관용으로 제작 (호색 가죽면표지, 금박 950페이지, 미색용지, 유성인쇄)
 ●입찰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나리
 ●배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한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2)993-8680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卜問 대표 김나리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이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이라, 이 책을 활용하여 利害를 명성하고 학문성취함에 비하면 매우 싼 값에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후,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數卜 煥然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또,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해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